



비틀즈, 음악, 그리움… 그 영원한 기억들

비틀즈 50년 '한국의 비틀즈 마니아展'

19일~10월 4일 롯데갤러리 광주점

데뷔앨범부터 포스터·잡지까지 400여점 전시
전시장 한켠에선 턴테이블 마련 명곡 들려줘

"전지개벽과 같았다. 리버풀의 어린 영웅들은 더벅머리를 흔들고 기타를 치면서 노래했다. 그 노래는 자유이며 희망이었고 저항이며 그리움이었다. 비틀즈는 여기가 아닌, 또 다른 세상이 있어야 한다는 꿈을 나에게 심어주었다. 내 청소년 시절은 군가와 친구와 뽕쪽의 정서로부터 해방됐고, 나는 사춘기에서 청년기로 나아갔다."(소설가 김훈 '비틀즈와 나' 중에서)

1962년 영국 리버풀에서 결성된 비틀즈는 그룹 '비틀즈'(The Beatles)는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중의 기억 속에 살아있다.

1집 앨범 'Please Please Me'를 낸 뒤 1970년 해체될 때까지 발표된 280여곡을 모두 재생해도 10시간이 넘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들의 노래는 현재까지 전 세계 마니아들을 형성하며 문화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비틀즈 탄생 50주년을 맞아 열리는 '비틀즈 50년, 한국의 비틀즈 마니아'

전은 그때의 향수, 추억을 자극할만한 전시다.

롯데갤러리 광주점이 1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여는 이번 전시는 존 레넌, 폴 매카트니, 조지 해리슨, 링고 스타가 결성한 4인조 록그룹 비틀즈의 음악, 기록과 그들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가득하다.

데뷔 앨범부터 마지막 앨범 타이틀 이자 앨범 제작 표지 활용을 한 곳으로 유명한 애비로드(Abbey Road)까지 비틀즈가 발표했던 오리지널 앨범

과 국내 발매 앨범, 불법 복제된 앨범 등 100여종과 CD 200여장, 포스터 40점, 잡지 등 국내의 비틀즈 관련 기록 전시장을 채운다.

전시장 한 쪽에 턴테이블을 마련하고 비틀즈의 명곡을 틀어 팬들에게 그리움과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8명의 작가들이 비틀즈를 소재로 내용은 작품도 관객들과 만난다.

로봇 장난감을 소재로 '스티'를 표현하는 작가 고근호씨는 '영웅-비틀즈'라는 작품으로 존 레넌, 폴 매카트

니, 조지 해리슨, 링고 스타를 전시장으로 불러왔고 '연필'의 작가 홍경택씨도 정사각형 화폭에 비틀즈 멤버를 집어넣은 'The Beatles'로 애호가들의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이와 김선우·김형관·서상의·이기일·이동재·이호진씨 등이 비틀즈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현대미술 작품이 소개되고 소설가 김훈이 쓴 글도 전시된다.

문의 062-221-1808.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아빠 엄마 연애방해 17세 소녀 과거로

'웨딩 브레이커' 10월 7일까지 기분 좋은 극장

시간 여행을 소재로 한 로맨틱 코미디 '웨딩 브레이커'가 한창 공연중이다. 10월 7일까지 기분 좋은 극장(상무지구 우체국문화회관 16층).

서울 대학로의 인기 작품을 연이어 무대에 올리고 있는 광주 MBC '언락이 좋다' 시리즈 중 한편으로 자신의 탄생을 막기 위해 미래에서 온 17세 소녀 임이랑이 벌이는 요절복통 연애 헤방 대작전을 그리고 있다.

대학 선·후배로 만나 7년째 연애중인 임향한과 김인영 앞에 어느날 17살 된 딸이 나타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내셔널필하모닉오케스트라 '광주국제음악제'

20~21일 문예회관·금호아트홀서 개최
이강일씨 지휘… 日 정상급 솔리스트들과 협연



후미에 에이누 알렉 쉬친 키야마 아키코

국내외 최고 음악가들 열정의 하모니

지난 여름 청단 연주회를 가진 광주내셔널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20~21일 제4회 광주국제음악제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제는 민간 오케스트라가 주최가 되 진행하는 의미있는 행사를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강일(계명대 교수)씨가 지휘봉을 잡은 20일(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대극장) 공연은 토시의 오페라 '세미라미데' 서곡으로 문을 연다.

이어 후미에 에이누(오사카 필하모닉 객원 악장)가 멘델스존의 '바이올린협주곡 마단조'를, 이태

리 라흐마니노프 국제 피아노콩쿠르에서 우승하고 모스크바 필하모닉과 협연한 알렉 쉬친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협주곡 2번'을 협연한다.

또 플루티스트 오신정(인제대 교수)씨는 도플러의 '헝가리 전원 환상곡'을 들려준다.

21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리는 공연은 일본의 정상급 솔리스트들의 다양한 협연 무대로 꾸며진다.

베토벤의 '호른 소나타 바장조'를 키야마 아키고(울산시립교향악단 수석)가 연주하며 후미에 에이

누와 다케히코 우라(요미우리 니폰 심포니 단원)씨는 각각 비탈리의 '샤콘느'와 생상스의 '오보에 소나타 라장조'를 선사한다.

또 콘트라베이스 연주자 이시가와 히로유키(일본 요미우리 일본 교향악단 수석)씨가 보테시니의 '엘리자 1번&티라벨라', 소프라노 김성혜씨가 오페라 '마술피리' 중 '자옥의 복수심은 내 마음 속에 불타오르고', 오랜바흐의 '호프만의 이야기' 중 '인형의 노래'를 들려준다.

티켓 가격 3만원~1만원. 문의 062-953-398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통과 현대의 어울림, 박물관 음악회

22일 '크누아 클라리넷 앙상블' 연주팀 초청

국립광주박물관은 오는 22일 오후 6시 박물관 대강당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크누아 클라리넷 앙상블' 연주팀을 초청, 음악회를 연다.

'크누아 클라리넷 앙상블'은 한국 예술종합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연주단체로, 오광호 교수의 지휘로 헨델의 '시바여왕의 도착', 바클라프 넬리벨의 '코랄과 춤' 등을 들려준다.

이번 음악회는 박물관이 오는 2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진행하는 '질강성의 보물' 특별전을 기념해 열리는 전시다.

것으로, 박물관은 중국 절강성박물관과 한중 수교 20주년 및 자매관 교류 5주년을 기념하는 국제 교류전 시로 절강성박물관 소장 유물 200여점을 전시한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조선시대 호남교육' 19일 광주교대서 심포지움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문병란)과 광주교대 역사문화교육연구소(소장 김덕진)는 19일 오후 3시 광주교대 교육대학 관현관에서 제7차 학술심포지움을 연다.

'조선시대 호남교육의 실상과 위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안동원(조선대 고전번역 센터 연구원), 김대식(조선대 교수), 토론자로는 박연호(광주교육대 교수), 권수용(조선대 한국학자료센터 연구원), 김덕진씨가 참여한다.

김봉곤(순천대학교 HK연구교수)씨가 '하서 김인후의 강학 활동과 훈몽재', '목미암과 향촌 지식인의 역할', '존재 위백규의 향촌 교육책과 장전제' 등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다.

토론자로는 박연호(광주교육대 교수), 권수용(조선대 한국학자료센터 연구원), 김덕진씨가 참여한다. 문의 062-234-272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화 / 제 / 집 / 중 / 한 / 손 / 에 / 잡 / 히 / 는 / 대 / 능 / 한 / 자 / 외 / 국 / 어

대한민국 대표 한자 외국어 SERIES



한권으로 해결하는 외국어 도서의 최강자

한자, 외국어가 한 손에 쪽! 언제 어디서나 갖고 다니며 읽는 편리한 실용용점 포켓북시리즈.

대능교육만의 노하우가 담긴 포켓북 시리즈는 학습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들만 골라 담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포켓 사이즈 MP3 무료다운 효율적 학습



* 알짜배기 여행회화 시리즈 외국인 감수 각권 7,000원

알짜배기 여행회화 시리즈
■ 상황별 핵심 문행과 활용단어로 구성
■ 여행지의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 주제별 단어장 시리즈 외국인 감수 각권 6,000원

주제별 단어장 시리즈
■ 교육부 지정 필수 단어 수록
■ 각 주제에 맞는 유용한 팀과 응용회화로 구성



* 한자능력 검정시험 시리즈 대능한자연구회

진급승부 한자능력검정 시리즈
■ 급수별 한자색인 다양한 활용단어 수록
■ 예상문제를 통한 기출문제의 성향, 학습성취도 평가



수험생을 위한 맞춤 고사성어백과
내신·입시·한자능력검정시험 및 국가적 기출문제 표지
알짜배기 고사성어백과 값 8,500원